

第59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5月 25日(土) 11時 00分

場 所 本會議場

第59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 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吳益煥)

(11時 00分 開式)

○議事係長 吳益煥 지금부터 第59回 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겠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憲中 때는 24계절 중에서 입하라는 계절로 여름이 닥쳐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시고 또 계속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느끼는 점, 앞으로 구청 행정에 동참하면서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23일날 11시경에 북한 미그19기 귀순자 이철수라는 사람이 평남 온천기지에서 이륙해서 편대이탈, 고공으로 구름 속으로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던 평남 웅진반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 공군기는 드디어 레이더망을 통해서 보고를 했고 또 초계비행을 하던 한 비행기가 즉각 이철수 중위 미그19기의 앞을 가로막자 또 한 대가 다시 초계 중인 비행기가 나타나서 좌우 가운데다 놓고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겁니다. 그건 연출하려 해도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두 대가 한 대를 가운데다 놓고 저공비행으로 바뀌라 했을 때 뒤의 날개를 흔들면서 귀순의 의사를 표시했고 드디어 춘천 북방에서 초계하던 F16 우리 아군 비행기 2대가 더 와서 4대가 수원공군기지까지 10시 45분에 이륙한 그 비행기를 약 25분만에 수원기지에 유도를 해서 무사히 귀순하게 했다는 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TV나 또는 보도를 들을 때 정말 우리 공군 국방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내무부의 통제에서 하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통제본부에서는 심지어 자동으로 되어 있던 경보망을 수동으로 바꾸는 정말 상상도 못

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야기시켜서 설마 설마 하다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미 직무유기,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알고서 행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우리 서울시 시민 1,200만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혹은 이미 적기가 휴전선을 넘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이 몰랐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또 몇 사람의 실수로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시민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議員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鍾路區는 과연 허점이 없느냐, 서울시 방공 행정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종로 행정은 구멍이 없느냐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몇 분 여기 구청 공무원들이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장 공무원상을 구현할 수 있고 일을 제일 많이하는 것이 계장, 과장급입니다. 계장, 과장급들한테 데려다 뭘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공부를 하라, 또 이 세금이 무슨 세금이나 하면 그 답변을 못하는 계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議會에 노출되고 있고 區廳이 편안한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議員님들이 많이 봐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 종로구는 구청이 앞바퀴라면 議會가 뒷바퀴고 議會가 앞바퀴라면 區廳이 뒷바퀴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議會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감히 오늘 느끼는 대로議員님들 21명을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局長님들! 돌아가시면 한 번 지금부터라도 우리 종로구는 행정의 허점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하나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느끼는 점은 區廳長은 외부에서 무척 바쁩니다. 모든 행사에 區廳長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각 局長들이 특히 주무국장이 거기에 따라가고 과장들이 따라가고 기타 등등 따라가서 행사를 하다 보면 그날 해가 저물니다. 이런 식으로 밑의 사람들을 통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거 관선 때 만약이라도 국장이 나가게 되면 과장이라도 앉아 가지고 그 관할 업무를 속속히 파악해서 과장은 국장에게 보고하고 국장은 즉각 부구청장을 통해서 區廳長에게 보고하는 보고 요령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종로구는 허점이 없는 종로구, 진출되는 종로구, 창의력을 가지고 앞서가는 종로 행정을 이룰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 겸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議事係長 吳益煥 以上으로 제59회 鍾路區議會臨時會 開會式을 마치겠습니다.

(11時 13分 閉式)